

“한국불교의 승가교육제도”에 대한 논평

양 은 용

(원광대학교)

I

승가는, 주지하는 바와같이, 佛寶 · 法寶와 함께 僧寶라는 이름으로 불교신앙의 위를 점한다. 유구한 전통을 지닌 이러한 승가가 그 위상을 유지해 오는데는 교육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교육은 불교교리의 체계화와 사상의 발전은 물론, 승려의 자질함양과 승가의 질적향상을 가져 오는데 관건이 되어 온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전통의 승가교육과정(履歷과정)은 일반적으로 淸虛休靜(西山大師, 1520-1604) 당대에 틀잡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자학을 치국이념으로 하는 조선왕조에 있어서 휴정당대는 국가사직이 위태로울 때였고, 외침과 내우가 거듭되는 상황이었다. 승병활동을 통해 호국적 실천이념을 전개하던 당대에 불세출의 고승학덕인 휴정의 영향은 컸었고, 僧團의 개편과 승가교육의 체계화가 이루어진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로도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불교의 개혁사조가 전개되는 오늘의 변화된 사회상황에 있어서 불교가 교화력을 발휘하고, 승가가 사부대중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승가교육을 점검하는 작업은 필요불가결한 일로 생각된다. 박선영박사의 「한국불교의 승가교육제도」는 우선 이러한 시의성을 충분히 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

박선영박사는 「I. 논의의 방향」에서 전통종단의 대표격인 「조계종의 종현과 종

법에 규정된 승가교육의 목적과 기관」을 한정하여 논고를 이루고 있다. 「II. 승가교육의 역사」에서는 석존에서 시작되는 초기불교에서부터 受戒儀式을 다루고 승가교육이 형태화되는 과정을 살핀다. 「III. 현행한국의 승가교육제도」에서는 승가교육의 목적과 기관으로 초기교육기관으로서의 행자교육원,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승가대학,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학림·승가대학원·율원·선학연수원을 다루고, 승가교육의 내용과 운영에서는 이들 기관의 운영실태 및 교육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IV. 현행한국 승가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앞에서 고찰해 온 바를 정리하여 일단의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하고 있다.

종합적인 고찰로서 행자과정과 관련한 운영기간의 문제, 종단 교육법에 나타나는 교과과정의 문제, 피 교육자가 정규교육과정을 거친 다음 지방의 승가대학에 재편입하는 비효율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강원 즉 지방의 승가대학이 서양식 세속학제를 따를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천대학·화엄학·선학 등 분야별 특성화를 살리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한 그것을 중앙승가대학교의 대학원으로 제도화시켜 나가는 안 등을 개진하고 있다.

III

이러한 박선영박사의 고찰은 합당하고, 현행 교육상황에 있어서 발견되는 문제점, 그리고 승가교육의 발전을 위한 몇가지 기초적인 개선안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다만 논의의 초점을 「조계종의 현실은 과도기의 현상」, 즉 새로운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모색이라고 본다면, 「II」에 포함된 한국승가교육의 역사부분을 독립시켜, 그것이 갖는 특수성과 사상성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다. 시대가 바뀌더라도 역사속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최근세의 사회변화와 때를 같이하여 개척불교사조를 전개하면서 모색했던 불교개혁이론 속에 나타나는 승가교육의 현대화문제 등을 부각시킬 때, 오늘의 상황을 풀어가는 대안이 적실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울러 승가교육을 승단의 운영 내지 불교교단의 사회교화력과 관련시켜 볼 때,

교육과정과 수계제도에 관련된 좀더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는 박선영박사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을 마치고 구족계를 받으므로써 가져와지는 집단의식의 질적향상 문제를, 오늘날의 한국종교계의 성직자 배출문제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기해본다. 이를 박선영박사가 지적한 바의 승려 재교육문제와도 관련시켜 보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요청되는 바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발전의 문제는 조계종단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개진에 매우 조심스러운 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진흥원 등에 협조를 구하여 3년 혹은 5년 단위 등의 시기를 정하고, 조사항목을 대·소로 나누는 방법 등으로 승단 내지 사부대중의 의식성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에 정기적인 사회조사가 이루어져 그 결과를 종단이나 학계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종교교육계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그간에 이와 유사한 몇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바는 있지만, 시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인식성향의 변화추이를 읽어볼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을 박선영박사께 요청코자 하는 바이다.